# 하상주보

2021년 2월 28일 (나해) 사순 제2주일 제1841호

그때에 구름이 일어 그들을 덮더니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그 순간 그들이 둘러보자 더 이상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그들 곁에 계셨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마르 9,7-9)

〈그리스도의 변모(부분)〉, 라파엘로 산치오, 1516~20년, 바티칸 박물관

**[제1독서]** …… 창세 22,1-2.9ㄱ.10-13.15-18

**[화답송]** …… 시편 116(114—115),10과 15.16-17.18-19ㄱㄴ (◎ 9)

**◎ 나는 주님 앞에서 걸어가리라. 살아 있는 이들의 땅에서 걸으리라.**

○ "나 참으로 비참하구나." 되뇌면서도 나는 믿었네.
주님께 성실한 이들의 죽음이 주님 눈에는 참으로 소중하네. ◎
○ 아, 주님, 저는 당신의 종. 저는 당신의 종, 당신 여종의 아들.
당신이 제 사슬을 풀어 주셨나이다. 당신께 감사 제물 바치며
주님 이름 부르나이다. ◎
○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주님께 나의 서원 채우리라.
주님의 집 앞뜰에서, 예루살렘아, 네 한가운데에서. ◎

**[제2독서]** …… 로마 8,31ㄴ-34

**[복음 환호송]**

**◎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빛나는 구름 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복음]** …… 마르 9,2-10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주 소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전 화 (703)968-3010 팩스 (703)968-3013
홈페이지 www.stpaulchung.org 이메일 sthasang@gmail.com

주임신부 김태진 (베네딕토)
보좌신부 이태섭 (요한 사도)
사도회장 황원균 (알렉산더)

##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 무렵 [2]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다.
[3] 그분의 옷은 이 세상 어떤 마전장이도
그토록 하얗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4] 그때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5]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6] 사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던 것이다.
제자들이 모두 겁에 질려 있었기 때문이다.
[7] 그때에 구름이 일어 그들을 덮더니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8] 그 순간 그들이 둘러보자 더 이상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그들 곁에 계셨다.
[9]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10] 그들은 이 말씀을 지켰다. 그러나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저희끼리 서로 물어보았다.

### 성 요셉에게 바치는 기도

**○ 우리 주 예수님을 기르신 아버지시요**
**정결하신 동정 마리아의 배필이시며**
**임종하는 이의 수호자이신 성 요셉께 간절히 청하오니**
**● 하느님께 빌어주시어**
**저희가 예수님을 사랑하며 충실히 따르게 하소서.**
**또한 죽을 때에 저희를 지켜주소서.**
**◎ 아멘.**

**☆ 성 요셉의 해: 2020년 12월 8일 – 2021년 12월 8일**
• 성 요셉의 해 특별 전대사
https://cbck.or.kr/Notice/20210029?gb=K1200

## ✝복음 묵상

오늘 제1독서인 아브라함과 이사악의 이야기에서, 무엇보다도 하느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순종이 강조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나치지 말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백 살에 아들 이사악을 낳았고, 창세기에서 이사악을 지칭할 때 사용된 "아이"(창세 22,5.12)는 아기가 아닌 10대의 소년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백 살이 넘는 노인이 힘으로 10대 청소년을 제압하여 제단에 묶어 놓을 수 있었을까요?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사악의 순종도 함께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는 복음에서 다시 언급됩니다. 바로 하느님 아버지와 그분의 외아드님이신 예수님의 관계입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느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로 명확하게 언급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느님의 뜻을 따르고자 아들을 봉헌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뜻과 의지로 당신의 외아들을 기꺼이 희생시키고자 하셨습니다. 그럼 이사악을 보겠습니다. 이사악은 기꺼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뜻을 따랐지만, 죽음을 맞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사악을 뛰어넘는 순종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에 대한 신뢰 속에서 수난의 길,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는 길을 걸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길을 걸어가실 수 있으셨던 힘은 바로 당신을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당신을 신뢰하시는 아버지를 신뢰하시는 깊은 관계에 있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예수님 변모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면서도 두려움을 느꼈던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온전히 순명하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신뢰하시며 사랑받으시는 아드님으로 좁고 험한 길을 가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따라, 아버지를 신뢰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결심의 시기가 바로 사순 시기입니다.

(박형순 바오로 신부)

# 주님 수난 40일간의 여정을 축복하소서

- 주님 수난 묵상하며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십자가의 길'

본당에서는 지난 2월 18일(목)부터 〈주님 수난 40일간의 여정〉을 시작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에 모여 십자가의 길과 미사를 봉헌하며,
매 주일 오후 3시에도 십자가의 길 예식이 있다.
이른 새벽에도 불구하고 이미 많은 신자들이 참회하고 기도하는 사순 시기를
보내고자 '십자가의 길' 행렬에 함께 하고 있다.

김태진(베네딕토) 주임 신부가 준비한 기도로 진행하고 있는 '십자가의 길'은
매일 다른 지향(가정과 부부, 자녀와 부모, 공동체, 코로나, 이웃과 나 자신 등) 으로
14처를 묵상하도록 이끈다.

주님의 수난을 깊이 묵상하는 동시에 자신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는 은총의 여정,
〈주님 수난 40일간의 여정〉은 오는 3월 31일(수)까지 이어진다.

**✝ 주 예수님,**

**◎ 저희를 위하여 온갖 수난을 겪으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성모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하나이다.**
**저희에게 죄를 뉘우치고**
**주님의 수난을 함께 나눌 마음을 주시어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며**
**성직자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모든 죄인이 회개하도록 은혜를 내려주소서.**

##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심을 묵상합시다

저는 당신의 손과 발에 못을 박습니다.
저는 당신 없이 살아갑니다.
당신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당신처럼 살지 않습니다.
저는 물질을 좋아하고 욕심에 눈이 멀어 살았습니다.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저의 명예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저보다 약한 이들을 돕기보다는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이런 저의 행동이 당신을 십자가에 못박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오늘도 십가가에 못박히십니다.
우리를 사랑하기에 당신의 손과 발을 대못에 맡깁니다.
주위에 온통 당신의 손과 발을 뚫는 소리가 쾅쾅쾅 들립니다.

(2월 25일 십자가 길 제11처 묵상 중) 하상주보 ©

성 요셉의 해

2020년 12월 8일부터 2021년 12월 8일까지

# “모든 신자들이 성 요셉의 모범을 따라 신앙의 삶 살아가기를”

프란치스코 교황이 성 요셉의 보편교회 수호자 선포 150주년을 맞아 2020년 12월 8일부터 2021년 12월 8일까지를 ‘성 요셉의 해’로 정해 기념하도록 했다. 교황은 12월 8일 교황 교서 「아버지의 마음」을 발표하고 성 요셉의 해를 선포했다. 교황은 성 요셉의 해를 통해 “모든 신자들이 성 요셉의 모범을 따라 주님의 뜻을 성실하게 수행해 일상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갈 것”을 당부했다. 교황은 “성 요셉은 잘 드러나지 않지만 고통의 상황에서 우리를 위해 전구하고 지지하며 안내해 줄 수 있다”면서 “성 요셉은 구원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숨어서 혹은 뒤에서 비교할 수 없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교황은 교서에서 요셉 성인이 사랑받는 아버지이자 자상하고 가정을 사랑하는 아버지, 하느님 뜻에 순종하는 아버지, 조건 없이 마리아를 받아들인 아버지, 용기있게 가정을 지킨 아버지, 가족 부양을 위해 일하는 아버지, 앞에 나서지 않고 뒤에서 조용히 지지하는 아버지의 표본을 보여줬다면서 “성 요셉의 해를 선포한 목적은 이 위대한 성인을 더욱 사랑하고 성인의 전구를 요청하며 그의 성덕과 열정을 따르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성 요셉의 해 선포와 더불어 교황은 성 요셉의 해 동안 특별 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허락했다.

## 특별 대사의 은총

교황청 내사원이 지시한 상황과 방식을 따르면서 모든 죄를 끊어버리는 마음으로 성 요셉의 해에 참여하는 신자에게는 통상적인 조건(고해성사, 영성체, 교황님의 지향에 따른 기도) 아래 전대사가 수여된다.

ㄱ.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요셉 성인은 우리가 성부와 맺는 자녀 관계를 재발견하고, 기도에 대한 우리의 충실함을 새롭게 하며, 하느님의 뜻에 귀 기울이며 깊은 분별력을 갖고 그에 응답하도록 우리를 초대한다. 따라서 적어도 30분 동안 주님의 기도를 묵상하거나, 성 요셉에 대한 묵상을 포함한 최소 하루 동안의 영성 피정에 참여하는 모든 이에게 전대사가 수여된다.

ㄴ. 복음은 요셉 성인에게 “**의로운 사람**”(마태 1,19 참조)이라는 칭호를 부여한다. 그는 “마음과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내밀한 비밀”의 보호자이고, 하느님의 신비의 수탁자이며, 그 때문에 내적 법정의 이상적인 수호자로서, 우리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할 때 침묵과 신중함과 정직함의 가치를 재발견하도록 독려한다. 요셉이 모범적인 방식으로 실천한 정의의 덕목은 자비의 법이라는 하느님의 법을 온전히 따른 것이다. “참된 정의를 완성하는 것은 바로 하느님의 자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요셉 성인의 모범을 따라 자비의 육체적 또는 영적 활동을 하는 이들도 마찬가지로 전대사의 은총을 받을 수 있다.

ㄷ. 요셉의 소명의 주요한 측면은 복되신 동정녀 마리아의 남편이자 예수님의 법적 아버지인 나자렛 성가정의 보호자가 되는 것이었다. 모든 그리스도인 가정이, 성가정이 충만하게 살았던 바로 그 내밀한 친교와 사랑과 기도의 모범을 재현하도록 장려하려는 목적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약혼자끼리 거룩한 묵주기도를 바치는 신자들에게 전대사가 수여된다.

ㄹ. 1955년 5월 1일, 하느님의 종 비오 12세께서는 "노동의 품위를 모든 이가 인정하게 하고, 노동의 품위가 권리와 의무의 공정한 분배에 토대를 둔 법률과 사회생활에 영감을 불어넣게 하려는 의도로" 노동자 성 요셉 축일을 제정하셨다. 따라서 날마다 자신의 활동을 요셉 성인의 보호에 맡기는 자는 누구든지, 그리고 구직자가 일자리를 찾을 수 있고 모든 사람의 노동이 더욱 품위를 얻도록 기도로써 나자렛 노동자의 전구를 청하는 신자는 누구든지 전대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ㅁ. 성가정의 이집트 피난은 "하느님께서는 인간이 위험에 처한 곳, 고통받는 곳, 도망쳐 나오는 곳, 거부당하고 버림받는 곳, 바로 그곳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 준다." 그러므로 내적으로 외적으로 박해받는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온갖 종류의 박해를 받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위로받도록, 성 요셉 호칭 기도(라틴 전통의 경우), 또는 성 요셉 찬미가(Akathistos) 전부 또는 적어도 일부(비잔틴 전통의 경우)를 바치거나, 또는 그 밖의 전례 전통에서 성 요셉에게 드리는 다른 고유 기도를 바치는 신자들에게 전대사가 수여된다.

교회에서 요셉 성인이 가진 보호권의 보편성을 재확인하고자, 본 교황청 내사원은 앞서 언급한 경우 외에도 신자들에게 **전대사**를 수여한다. 특히 **3월 19일**과 **5월 1일**,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 성 요셉 주일**(비잔틴 전통의 경우), **매월 19일**, 그리고 라틴 전통에 따른 예법에서 요셉 성인을 기념하기 위해 봉헌된 매주 수요일에, 합법적으로 승인된 기도, 곧 예를 들어 "당신에게, 오 복되신 요셉"과 같이 요셉 성인을 기리는 신심 기도를 바치는 신자들에게 전대사를 수여한다.

공공 보건이 위험에 처한 오늘날, 전대사의 은총은 특히 연로한 이들, 병든 이들, 임종을 준비하는 이들과 합당한 이유로 외출할 수 없는 모든 이에게 아낌없이 주어진다. 그들이 자기 집에서 또는 자신들을 붙잡아 두는 장애가 있는 곳에서 어떠한 죄든지 혐오하는 마음을 품고 전대사의 세 가지 통상 조건을 가능한 대로 빨리 충족하겠다는 지향으로, 병자들의 위로이시며 임종하는 이의 수호자이신 요셉 성인을 기리는 신심 기도를 바치면서, 자기 삶의 고통과 불편을 자비로우신 하느님께 믿음으로 봉헌한다면 전대사를 받는다.

〈전문보기 : https://cbck.or.kr/Notice/20210029?gb=K1200〉

〈관련 기사 : https://www.vaticannews.va/ko/pope/news/2020-12/papa-francesco-lettera-patris-corde-san-giuseppe.html〉

# 본당 **가톨릭 성서모임** 2021년도 봄학기 개강 미사

본당 가톨릭 성서모임은 지난 2월 21일(일) 오후 5시 미사를 봄학기 개강 미사로 봉헌했다. 미사 중에 6명의 새 말씀의 봉사자들(전해내 레지나, 임현정 마리아, 박신현 데레사, 윤혜완 아가다, 라자진 세례자 요한, 김현준 요한)의 선서식이 있었다.

말씀의 봉사자는 가톨릭 성서모임에서 정한 과정을 마치고 그룹 성경공부를 통해 말씀의 선포에 헌신하는 사람이다. 주님께서 사도들을 개별적으로 이름 부르심과 같이, 기쁜 소식을 받은 새 말씀의 봉사자들은 '네, 여기 있습니다' 하고 큰소리로 응답하였다.

선서식에 이어 본당 가톨릭 성서모임의 새 임원진들(어버이그룹 대표 봉사자 신상희 글라라, 어버이그룹 총무 장지혜 로사, 영어권 청년그룹 총무 김병국 다윗)의 임명식이 있었다. 세 명의 새 임원진들은 하느님의 말씀이 어버이와 영어권 청년들 안에서 더욱더 퍼져나갈 수 있도록 힘쓸 것을 주님 앞에서 약속하였다.

올해의 성경구절로 **"당신 말씀은 제 발의 등불, 저의 길에 빛입니다"**(시편 119, 105) 를 택하여 시작한 2021년의 봄학기 성서모임은 영어권 청년창세기 두 그룹, 청년 탈출기 두 그룹, 청년 마르코 한 그룹, 어버이 창세기 일곱 그룹, 그리고 어버이 마르코 한 그룹으로 시작하였다.

성서모임은 앞으로 15주 동안 진행될 봄학기에 참여하는 모든 성서 가족들이 포기하지 않고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 잘 걸어나갈 수 있도록 교우분들의 많은 응원과 기도를 부탁했다.

(본당 청년성서모임 총무 한승진 아녜스)

# 알링턴교구 성소국 주최 청년 남성 사순피정

## YEARLY DISCERNMENT RETREAT *for* MEN

**Friday, March 19, 2021**

https://www.arlingtondiocese.org/yearly-discernment-retreat-men/

Held annually during Lent (March 19-21, 2021), this is a great opportunity for prayer and discernment, confession, and talking with priests and seminarians.

**Contact the Office of Vocations to register;** deadline **Monday March 8**.

집에서 사순 시기를 준비하는 신자를 위한

## 프란시스코 교황의 양심 성찰

1. 하느님을 필요할 때만 찾는가
2. 주일과 대축일 미사에 참례하는가
3.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가
4. 신자임을 드러내는 것이 부끄러운가
5. 질투하거나 화를 잘 내는가
6. 타인에게 정직하며 공평한가
7. 복음의 가르침에 따라 사는가
8. 부모님을 공경하는가
9.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가
10. 자연 환경을 존중하는가
11. 음식이나 물건을 남용하지 않는가
12. 시간을 소중하게 사용하는가
13. 세속인인가, 그리스도인인가
14. 재물에 몰두하지 않는가
15. 복수심이나 원한을 품고 있는가
16. 봉사받고 있는가, 봉사하고 있는가
17. 친절하며 평화를 위해 일하는가

〈출처:가톨릭 출판사〉

## 1 부활 판공성사 안내

### The Light is ON for You

사순시기 동안 알링톤 교구와 워싱턴 대교구의 모든 성당은 매주 **수요일 오후 6:30부터 오후 8시**까지 고해성사를 실시합니다. 가까운 성당을 찾아 성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https://thelightison.org/

#TheLIghtIsOn

- 매주 **수요일 저녁 6:30~8시**까지 **성체 현시와 부활 판공성사** 안내(3월)
  - ▷ 3일 : 알렉산드리아와 애난데일 구역
  - ▷ 10일 : 페어펙스 2, 버크 구역
  - ▷ 17일 : 페어펙스 3, 우드브릿지 구역
  - ▷ 24일 : 센터빌, 알링턴·폴스 구역
  - ▷ 31일 : 라우든, 스프링필드 구역
- 미사 30분 전에도 **고해성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 2 2021년 주교님 사목 보조비(BLA) 참여 현황

- 가난한 이들과 소외된 계층 등을 위한 알링턴 교구의 사업인 주교님 사목 보조비(BLA)에 신자 여러분들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은 액수라도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 의식이 필요합니다"

2월 25일 현재

| | 세대수 | 후원 세대 | 참여율 |
|---|---|---|---|
| St.Paul Chung | 2,366 | 228(+42) | 10% |
| 알링턴 교구 | 150,292 | 18,107 | 15% |

## 3 주일미사 참여 신청

- 방역관리를 위해서 주일에 미사 참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홈페이지나 사무실에 미리 **미사 참여 신청**을 해주세요. (예약없이 오시는 분은 패널티로 십자가의 길 1번)

## 4 3월 매일미사 책 찾아가세요

- 매일미사(3월) 책이 나왔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찾아가시고, 구입하실 분들은 성물방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5 주일학교 견진성사반 모집

- 견진성사 교리반(7-12학년 학생) : 3월 3일(수) 오후 7:30 첫 수업 (매주 수요일 오후 7:30)
- 문의 : 윤정 보일(클레어) 교감 spc15.re.admyc@gmail.com

## 6 주일학교 미사(English Mass)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 부모님들의 관심속에 자녀들이 신앙을 키울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7 온라인 봉헌

-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성껏 온라인 헌금으로 함께 해주시는 신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성경 필사 5년 계획 (2017-2021)

- 2021년까지 진행되는 성경(구약과 신약) 필사에 신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사순 제2주간 :** 아모 6-9, 묵시 12

##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21년 2월 21일 (사순 제1주일)

| | |
|---|---|
| 주일헌금 | $2,711.00 |
| 교무금 | $8,220.00 |
| 교무금(크레딧카드) | $1,570.00 |
| 온라인 봉헌 | $6,140.00 |
| 감사헌금 | $2,910.00 |
| 재의 수요일 | $2,104.00 |
| 2차헌금 | $1,143.00 |
| **합계** | **$24,798.00** |

## AM 1310 라디오 가톨릭 프로그램

**3월 3일(수) 오전 6:15-6:45 | 3월 6일(토) 오전 8:00-8:30**

- **워싱턴 가톨릭 소식**
- **CBCK 미디어 교리 - 성경**
- **김태진 주임 신부님의 2월 28일(주일) 미사 강론**

※ www.dc1310.com에서 ▶ **생방송 듣기** 를 선택하시면 스마트폰을 통해 생방송으로 청취를 하실 수 있습니다

## 버지니아 성정바오로 성당 제공 KACM TV 하이라이트

**3월 4일(목) 오후 5:00-6:00**
**3월 5일(금) 저녁 8:00-9:00**
**3월 7일(일) 오전 6:00-7:00**

Cox Ch.30, 830
Fios Ch. 30

1. CPBC 뉴스 2. 미니 순례 : 스페인/포르투갈
3. 나의 하느님 : 해금 연주자 정겨운 카타리나

**RE/MAX Gateway 부동산**
www.Rachael Kim.com
레이첼 김(아네스)
703-652-5790
Cell. 703-774-8945

**정재민 치과**
센터빌스퀘어(Centreville Square)
정재민(미카엘) DMD, PC
703-825-1191

**허진 변호사**
attorneyhuh24.com
민사, 형사, 소송재판 전문
허진(세바스찬)
703-288-1515

**문스 자동차 정비**
VA 인스펙션
오일체인지, 각종 자동차정비
이병일 (다니엘)
703-266-1983

**재노 오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재노 오 (로사)
703-772-7275

**마이키즈 소아/청소년과**
mykidspediatricians.com
정소연(크리스티나)
703-865-5437

**영스 헬스케어**
간병사,간호사,물리치료 서비스
김경해 (아네스)
703-647-0292

**김돈현 가정의학전문의**
Fairfax Family Medicine Center
Michael D. Kim, MD
703-591-4100

**베스트 사인**
간판 / 네온 / 박스 / 현수막
전광판 / 배너 / 메뉴판
703-887-1515

**뉴잉톤 오토바디**
자동차 바디, 정비, 페인트
김명곤 (바오로)
703-455-0008
Cell. 571-243-5037

**안 아픈 세상(양방/한방)**
교통사고보험 인정 병원
척추신경과, 치료맛사지과
한방나라 이혁찬 한의원
703-658-5100

**시티 종합 보험**
자동차, 주택, 비즈니스, 생명
김수현 (엘리사벳)
703-352-1073

**Lee's Heating & Air**
히팅 & 에어컨
이일우 (베드로)
703-675-8009

**골프 레슨**
성인레슨 및 원포인트 가능
초보, 학생, 여성 골퍼 환영
레지나
703-832-7155

**소아전문 치과**
Pediatric Dental Care
Dr. John Han (한장협)
Fairfax 703-383-3434
Springfield 703-992-7100

**시원 냉난방**
에어컨, 히팅, 플러밍
김연철 (윌리암)
703-362-7770

**민기호 내과**
John Min M.D.
703-462-8711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 발 통증 병원
Dr. 이형훈 (마르코)
센터빌,챈틸리 703-429-4622
락빌 MD 301-231-7588

**생명보험 · 메디케어**
**은퇴연금 · 사업체 보험**
홍마태오 703-969-8956
박소피아 703-969-8954

**커머셜 김준 부동산**
상업용, 투자용 건물 매매
리테일 / 오피스 리스
202-384-7301

**한미 소독**
가정집, 상점 (STORE)
하홍엽 (요한)
703-451-3322

**와니 건축**
In & Out 핸디맨 Service
부엌, 화장실, 덱
권태완 (빈센트)
571-331-6811

**민 자동차 정비**
703-869-9691

**원 통증 · 재활**
Woodbridge 지역
메디케어, 각종 보험
571-659-2540

**뉴욕라이프**
생명보험, 은퇴연금
자녀 저축보험
박수미(미카엘라)
571-263-1033

**정수정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정수정 (안나)
703-855-8575

**영스 히팅**
에어컨, 히팅
703-728-3160

**제니스김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제니스김 (베로니카)
571-723-6172

**Euromotor Cars Mercedes-Benz**
유스티노 한
703-855-8710

**Kim's Auto Service**
자동차 정비
703-425-4600

**영스 노인 복지센터**
주정부 보조 및 저렴한 개인 비용
703-988-2044

**박정훈(요한) 치과**
Family Dentistry
마운트 버넌 병원 근처
703-679-8959

**CORE 물리치료**
통증, 재활치료 전문 (메디케어)
김우기(안드레아), DPT
703-865-6455

**ASSA 종합보험**
메디케어 상품, 카이저 보험
현재 플랜에 관한 무료 상담
문의: 최 클라라
703-649-2110

**워싱턴 노인 복지센터**
데이케어, 홈케어
문의: 데레사
데이케어 703-963-1234
홈케어 703-850-1100

**경희 바울 한의원**
비만, 중풍, 통증, 내과 전문
변형식(바오로)
703-907-9299

**그레이스 홈 케어**
노인/중증 환자/산모 케어/물리치료
전문 간호 석, 박사 운영중
대표 김 아네스, RN
703-865-7370

**프렌즈 헬스케어/데이케어**
간병 및 물리치료
데이케어 서비스
임 에스더
703-819-0360

**윤 조셉 변호사**
www.yoonfirm.com
교통법, 형법, 개인상해, 파산
재판전문 변호사
703-260-6060

**재무설계**
생명보험, 학자금, 은퇴연금, 롱텀케어
개개인에 맞는 플랜 설계
탁지은(안젤라)
202-431-0627

**DK 건강 보험**
1956년생 메디케어
무료상담 및 신청
정문기(윌리암) 703-598-3316
정선화(도로테아) 703-862-5395

**GCOOP 케어셀라**
천연 고기능성 화장품
맑고 투명한 물광피부 약속
김은희(글라라)
703-732-3836

**광고 접수중 !**
광고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사 안내

**주일미사 생중계**
매 주일 오전 10시 미사가 유튜브로 생중계됩니다.
생중계는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으며,
지난 주일 미사도 본당 웹사이트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www.stpaulchung.org

**청소년·청년들을 위한**
**Youtube Channel**
**SPC Youth Media**

## 미사 시간 (MASS SCHEDULE)

※ 미사 참여 신청자 중 **선착순 100명**까지 미사 참여 가능

| | | | | |
|---|---|---|---|---|
| 주일미사 | · 08:00 AM<br>· 10:00 AM<br>· 05:00 PM | 평일미사 | 화요일 | 07:30 PM |
| | | | 수요일 | 11:00 AM |
| | | | 금요일 | 07:30 PM |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Tel (703)968-3010 | Fax (703)968-3013
Home Page : www.stpaulchung.org
E-Mail : sthasang@gmail.com


PARISH STAFF 주임신부 김태진 (베네딕토) | 보좌신부 이태섭 (요한 사도) | 사도회장 황원균 (알렉산더)